

세계잼버리 유치 '숨은 주역' 있었다

도청 국제협력과 직원
통역 자원봉사자 등
주말·밤낮없이 사투
한 편의 드라마 일궈 내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한 가운데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직원 등 실무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가 '2023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대한민국 607표 VS 폴란드 365표로 이 숫자 뒤에는 선봉에 서서 이른 지휘부 외에도 드러나지 않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또 달린 실무진 숨은 주역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직원들과 통역봉사자들이다.

송현숙 국제협력과 과장을 필두로 한 이 팀들은 한정된 인원으로 기존의 업무에 메가 이벤트인 세계잼버리 유치까지 겸하게 돼 업무분장을 재배치, 완전무장 상태로 대회 유치 실무에 입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차장 겸임이 있는 김승수씨를 영입하고 부안군 협조로 송귀열 주무관을 합류시켜 인력도 배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종선 전문경력관, 김승수 사무관, 송귀열 주무관은 개최 결정전 240일간 서울에 위치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실에서 합숙하다시피 하며 스카우트와 코드를 맞췄다.

또한 김종택 사무관과 박은정주무관, 송예진 주무관은 비행기를 놓치고 공항에서 밤을 새기를 반복

하면서 유치 성공에 일조했다. 병원신세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성범, 양은지 주무관 역시 주말 밤낮, 야근 연속 등 대회 유치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성공을 위해 유치단 못지않게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달린 숨은 주역들이 있다. 바로 168개국 스카우트 회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통역활동을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이다.

세계 스카우트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총 5개 언어로 되어 있다. 전

라북도에는 올해 1월초 각 대륙별 스카우트연맹을 상대로 맨루맨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치단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활동 지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해외 스카우트 지도자 초청행사에서 각국에서 온 해외의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통역활동을 지원했다.

이들은 'Color of Dream' 워크숍, 새만금 현장 시찰,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한 주요관광지 탐방 등 4박 5일에 걸친 일정동안 함께 하며, 지도자들이 공항에서 떠나는 순간까지 그들의 귀와 입이 꽤 주었다. 또

한 대륙별 스카우트 회원국 방문 시 동행해 통역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외 지도자 초청행사와 해외 출장 시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세계총회 전까지 SNS 등으로 연락하며 표심 동향을 파악하고, 투표권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을 함께한 통역 봉사자들은 모두 "영광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다"면서 환호성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진성 기자

기초연금 20만 → 25만원 인상

복지부, 내년 4월부터 올라
연금 깎이던 10만명 전액 받아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1일까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어르신 노후소득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약 475만 명이 매월 20만6050원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데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말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46.5%로, 전년보다 약 1.7%포인트 높아졌다. 기초연금액이 월 20만원 수준으로 낮아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액 인상되면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절대빈곤율도 지난해 기준 32.5%에서 내년 28.9%, 2021년 25.1%로 낮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 등 추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액에 연금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국민연금액이 한 달에 30만9000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받지만, 41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절반인 1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액에 연금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구조 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연금액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대상은 연간 약 23만~25만명(7~8%)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을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연금 감액 제도 폐지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내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적 연금의 체계 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각의 역할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 인상에 따르면 추가 소요 재정은 내년 기준 2조7000억원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수급자수도 지난해 475만명에서 내년 516만6000명, 2021년 598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육아휴직급여, 지금보다 2배 오른다

내달부터 통상임금 80% 인상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하한 70만원·상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면서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로 상향된 채 유지돼왔다.

이는 해외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이후 50%를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받거나 59주까지 80%를 지급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인 만큼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간 급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 경력 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벌이 문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전국 최초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전북도는 민선6기 삼락농정 핵심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인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접수를 9월 22일까지 받는다

고 21일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올해 시군별로 2개 품목을 추천받아 마늘, 양파, 생강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시장에서의 가격 등락폭이 심한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방향을 확대에 기여하는 최적화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사업신청 대상시군은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11개 시군이다. 가을 무(3개 시군)는 군산, 임실, 순창이고 가을배추(9개 시군)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이다.

가을무, 가을배추는 보통 8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가 과중시기이며 경작을 결정한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계약을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10월 중순~12월 상순)까지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사업기간은 2016년~2018년으로 3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을 확대 결정했다. 대상품목은 가을배추, 건고추, 양파, 가을무, 생강, 노지수박, 마늘이다. 지원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1만㎡(3,000평) 이하를 재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이다.

사업내용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 지원한다. 재정지원은 연간 100억원 한도내(도비 30%, 시군비 70%)이다.

전북도는 본 사업의 취지 전달과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군 설명회와 농업인 간담회를 올해만 16회

시장가격 하락시 차액 지원
가을 무·배추 등 신청 받아

를 추진했으며 가격에 민감한 중소농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주군 실천면 농업인 박모씨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풍년에도 가격폭락에 울었던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보험과도 같은 사업이다"라며, "전국에서도 전라북도가 최초라는 말을 듣고, 농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탁월한 농업정책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삼락농정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